

한국인 '내 삶' 중요성과 '현재' 만족도 분석

■ '내 삶'의 중요성 인식 현황

- _ '나'보다 '가족' 중시하지만, 혼자 있을 때 편안
- _ 성/연령별, 이념별 모두 '가족' 중시 / 편안한 시간 달라
- _ 직업별, 결혼여부별, 자녀유무별 모두 '가족' 중시

■ '내 일'에 대한 집중 정도

- _ '내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기회 찾는 경우도 많아
- _ '다른 거 알아봤다', 2030세대 특히 높아
- _ '다른 거 알아봤다', 화이트칼라·학생 외 모두 높아

■ '현재'에 대한 만족도

- _ 국민들, '내 삶의 현재'와 '대한민국 현재'에 불만
- _ 삶의 '단순화·속도 늦춤', 여자 30대와 4060세대 높아
- _ '레트로' 흐름, 자영업자와 주부계층에서 특히 높아
- _ '우리 세대 태어나 다행', 20대 남녀·60대 높아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6월 30일(금) ~ 7월 2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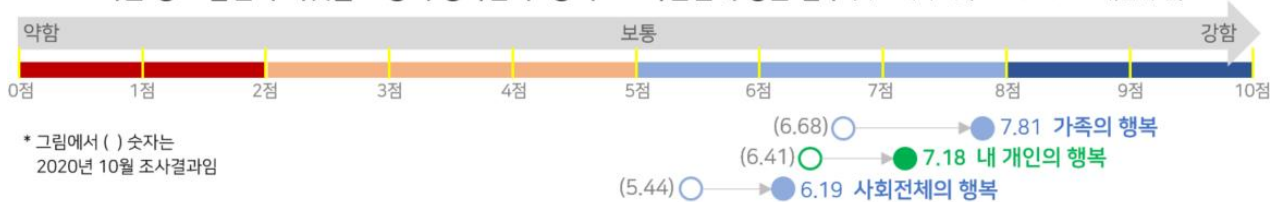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내 삶'의 중요성 인식 현황

□ '나'보다 '가족' 중시하지만, 혼자 있을 때 편안

-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의 행복'(7.81점)이고, 다음은 '내 개인의 행복'(7.18점), '사회전체의 행복'(6.19점) 순으로 조사됨
 - "나는 평소 살면서 이것을 소중히 생각한다"라는 질문 후 '내 개인의 행복', '가족의 행복', '사회전체의 행복' 각각에 대해 동의도가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응답토록 한 결과임
-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순위는 같고, 점수는 모두 상승함
- 또한 편안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혼자 있을 때'(7.53점)이고, 그 다음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있을 때'가 같은 점수(7.31점)로 뒤를 이음
 - "나는 이 시간이 편안하다"라는 질문 후 '혼자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있을 때' 각각에 대해 동의도가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응답토록 한 결과임
- 편안해 하는 시간을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대체로 순위가 같고, 점수는 모두 상승함
 - 2020년에는 '혼자 > 가족 > 생각같은 사람' 순이었으나, 2023년에는 '혼자 > 가족 & 생각같은 사람'으로 달라짐

"나는 평소 살면서 이것을 소중히 생각한다" 동의도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점)



"나는 이 시간이 편안하다" 동의도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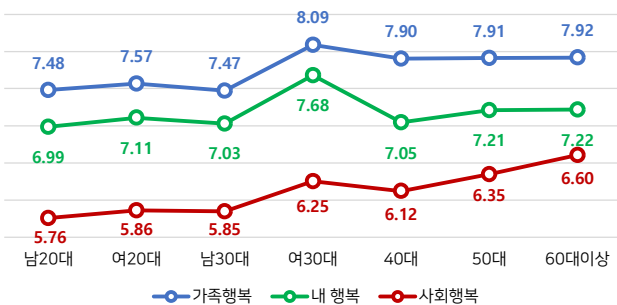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이 생각하는 '내 개인의 행복' 위치는 '가족의 행복'보다 낮고, '사회전체 행복'보다 높음
 - : 이는 2020년 조사결과 동일하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 ☑ 동서양 모두 근대화 이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형태가 바뀌었지만,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임
 - : 서구의 핵가족은 가부장주의에서 탈피한 개인주의 확장의 공간이었지만, 동양의 핵가족은 강력한 유교 관념에 의해 여전히 가부장적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임(예란 테르보른, 「다른 세계를 요구한다」)
 - : 또한 한국의 핵가족이 전 세계적인 '개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그 자유와 책임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에 있다는 분석임(장경섭, 「내일의 종언」)
 - :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가족'의 이름으로 '가족'의 규칙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 학업, 진로, 연애, 결혼, 출산 등에 '가족'이 개입하게 됨
- ☑ 우리 국민들이 '나'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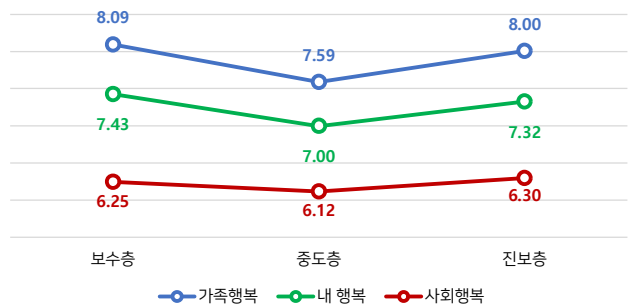
□ 성/연령별, 이념별 모두 '가족' 중시 / 편안한 시간 달라

- '삶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연령에 걸쳐 '가족 행복'이 가장 높고, 다음은 '내 행복', '사회 행복' 순으로 나타남
 - '가족 행복' 중시 점수는 20대 남녀와 30대 남자가 비슷하고, 30대 여자부터 4060세대가 이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비슷한 점수를 기록함
 - 한편, '사회 행복' 중시는 연령에 비례해 그 점수가 높아짐
- 이념별로도 마찬가지로 '가족 행복', '내 행복', '사회 행복'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 '편안한 시간'에 대한 응답은 성/연령별 응답이 다른데, 2040세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높았고, 60대이상은 '가족' 있는 시간이 가장 높았음
 - 50대는 '혼자', '가족',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두 비슷한 점수를 기록함
- 또한 20대 남녀는 '가족'과 있는 시간보다 '생각이 같은 사람'과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다고 응답함
 - 다른 성/연령대에서도 '가족'과 '생각이 같은 사람'의 점수가 거의 비슷함
- '혼자'가 편안하다는 응답은 이념별 응답에서도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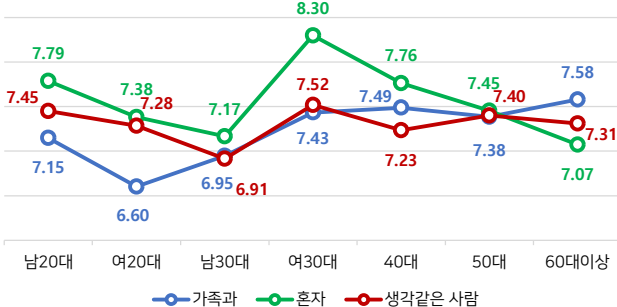
삶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것(2023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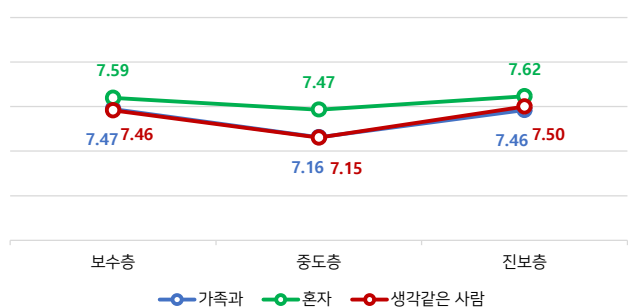
삶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것(2023년)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점)



편안한 시간(2023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점)



편안한 시간(2023년)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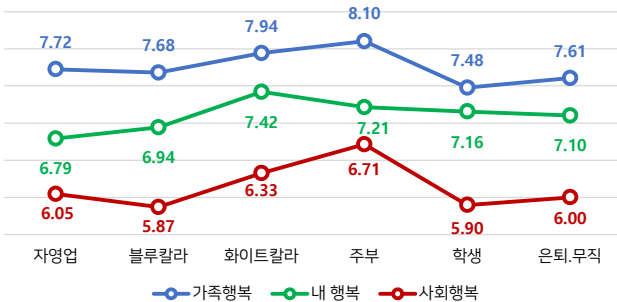
Kstat Point

- ☑ 모든 성/연령대에서 '내 행복'보다 '가족 행복'이 중요하다는, 이른바 '가족주의'가 매우 확고해 보임
- ☑ 그러나 2040세대를 중심으로 '가족'과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편안하다는 응답이 높아, '개인주의' 확산 흐름도 엿보임
 - 특히 '가족'보다 '생각이 같은 사람'과 있을 때가 편안하거나(20대 남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30대 남녀, 50대) '가족주의' 내용이 새롭게 구축되는 과정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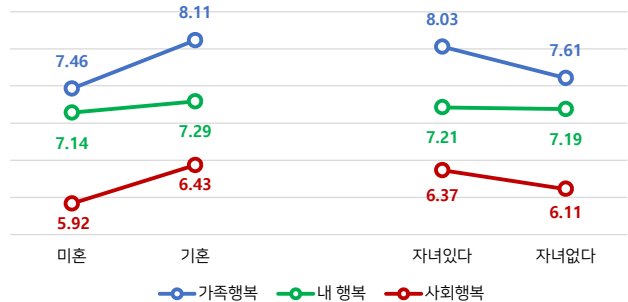
□ 직업별, 결혼여부별, 자녀유무별 모두 '가족' 중시

- '삶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직업별로 살펴봐도 모든 직업군에 걸쳐 '가족 행복'이 가장 높고, 다음은 '내 행복', '사회 행복' 순으로 나타남
- 결혼여부, 자녀유무를 떠나 마찬가지로 '가족 행복', '내 행복', '사회 행복' 순으로 조사됨
- '편안한 시간'에 대한 직업별 응답을 살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화이트칼라,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자영업자는 '생각이 같은 사람'이 근소하게 높고, 블루칼라는 '가족'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남
- 결혼 여부별로는 미혼은 '혼자', 기혼은 '가족'과 있을 때 편안하고, 자녀유무별로는 자녀가 있으면 '가족', 자녀가 없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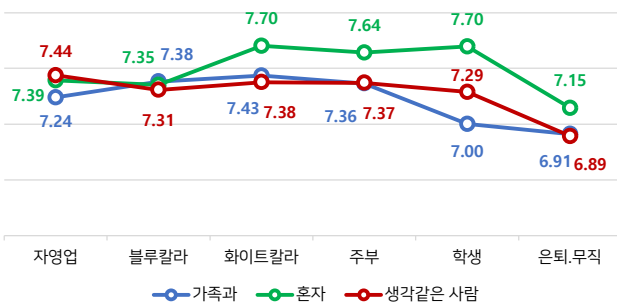
삶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것(2023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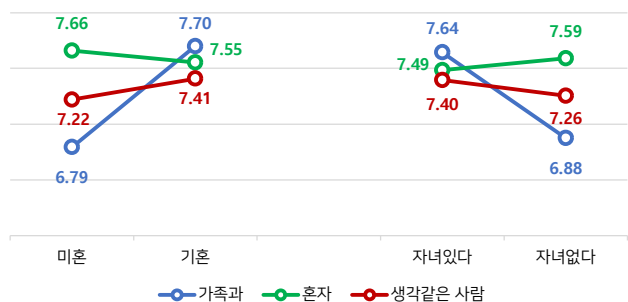
삶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것(2023년) : 결혼여부별,자녀유무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점)



편안한 시간(2023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점)



편안한 시간(2023년) : 결혼여부별,자녀유무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 또는 이유를 '가족 행복'에서 찾고 있음
 - : 모든 계층에 걸쳐 '내 행복'은 '가족 행복'보다 후순위임
- ☑ 삶을 살아감에 있어 '가족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편안하게 생각함
- ☑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는 '가족주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족'의 내용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보임
 - : 이 지점에서 주목되는 점이 결혼여부와 자녀유무로, 미혼자와 자녀가 없는 계층은 '혼자 있을 때'가 편하고, 기혼자와 자녀가 있는 계층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를 편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즉, 삶에서 '내 행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확산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는 것으로 보임
 - : 향후 '개인주의'가 '가족주의'와 '가족'에 대한 기존 관념을 어떻게 바꿔 갈지 귀추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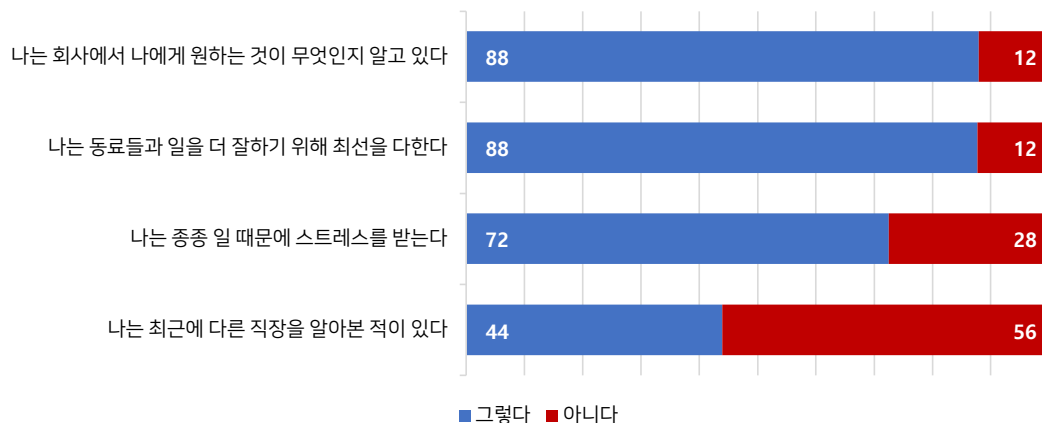
▶ '내 일'에 대한 집중 정도

□ '내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기회 찾는 경우도 많아

- 우리 국민들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는 회사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88%
 - “나는 동료들과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88%
-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이 다수임
 - “나는 종종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2%
- 또한 지금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려는 국민이 많지만, 떠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상당함
 - “나는 최근에 다른 직장을 알아본 적이 있다”, 44% vs ‘없다’ 56%
- 참고로 각 문항에 대한 질문은 직업별로 다르게 진행함
 - 즉, 위 질문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대상 질문이고 자영업자,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등은 그에 맞춰 질문을 달리함
 - 직장인(회사) → 자영업자(동료), 주부(가족), 학생(학생으로서), 무직.은퇴(주변)
 - 직장인(일) → 자영업자(일), 주부(집안 일), 학생(공부), 무직.은퇴(매일매일의 삶)
 - 직장인(다른 직장) → 자영업자(업종 전환), 주부(직장.사회활동), 학생(휴학), 무직.은퇴(취업,창업)

'내 일'에 대한 집중 정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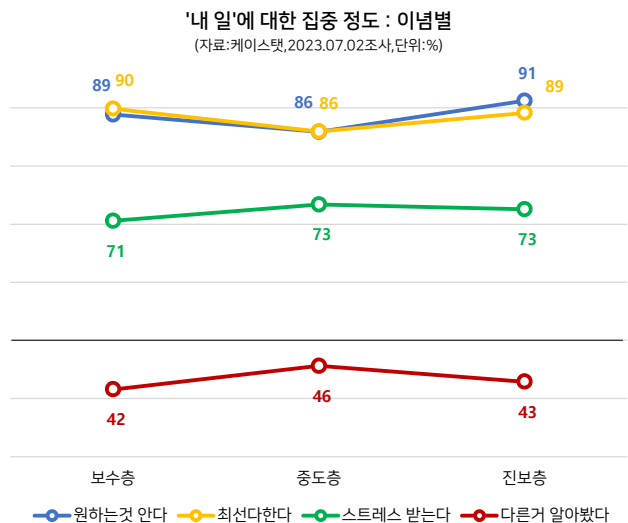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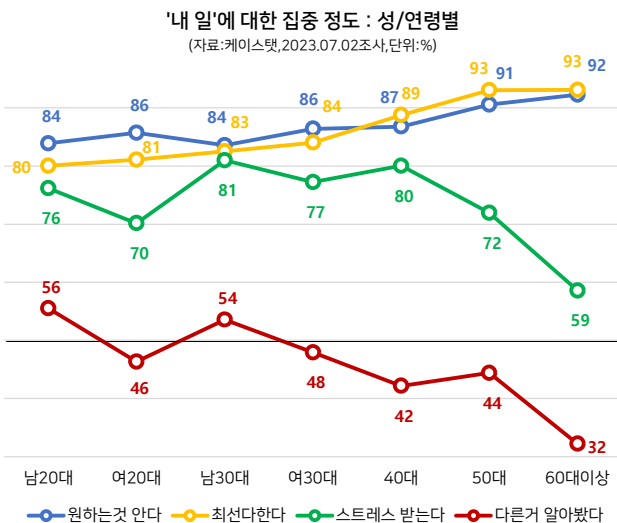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내가 해야 할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동료들과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지금의 직장에서도 계속 일을 하겠다고 생각함
- ☑ 다만, 지금의 직장을 떠날 생각을 하는 국민도 상당한 수준(44%)인 점이 주목됨(자영업자는 업종 전환, 주부는 취업 또는 사회활동, 학생은 휴학, 무직.은퇴자는 취업 또는 창업)
 - : 이는 현재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또는 상황)에 계속 있을 경우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읽힘
 - : 이렇게 볼 때 국민 중 44%는 현재의 삶에 불안해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른 거 알아봤다', 2030세대 특히 높아

- '내 일'에 대한 집중 정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연령대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안다'는 응답과 '최선을 다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음
 - 모든 성/연령대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안다'는 응답과 '최선을 다한다' 응답 모두 80%이상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비례해 높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선은 50% 기준선임
-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2050세대는 70% 이상인데 비해 60대이상은 59%로 낮아짐
- 한편, '다른거 알아봤다'는 응답은 남자 2030세대에서 50%를 상회하고, 여자 2030세대도 50%에 근접할 정도로 높음
 - 4050세대도 40%대 초반을 기록했으나, 60대이상은 32%로 낮음
- 이념별로 살펴봐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함
 - 모든 이념층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안다'는 응답과 '최선을 다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음
 -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70%대를 기록했으며, '다른거 알아봤다'는 응답은 40%대 초중반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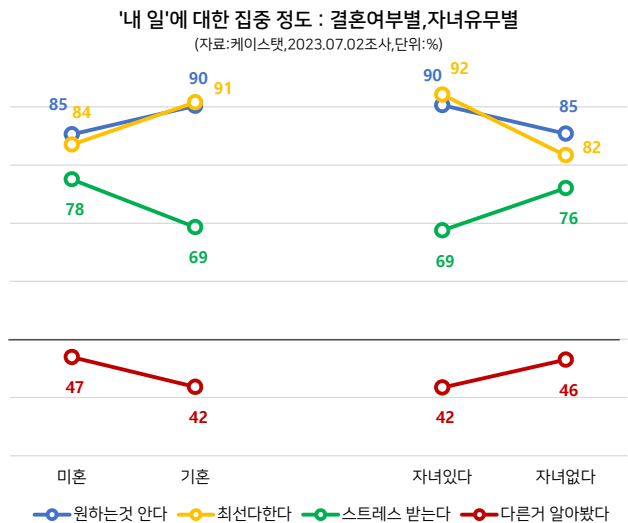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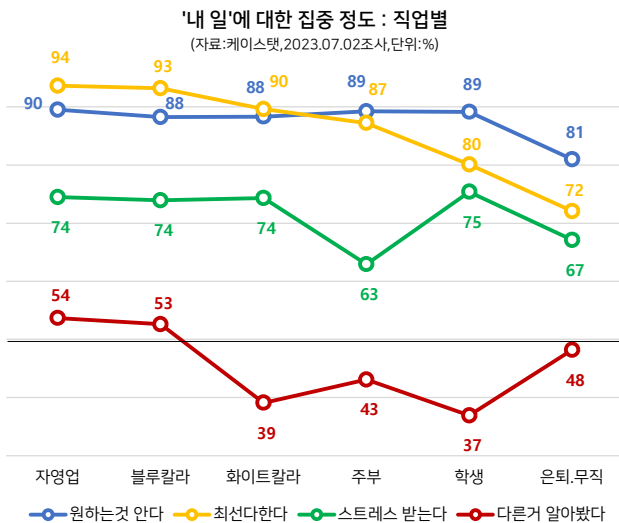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나이를 떠나 자신이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응답함
 - : 이 과정에서 대부분 70%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60대이상만 59%)
- ☑ 이렇듯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거 알아봤다'는 응답이 높아, 현재의 삶 영위 공간(또는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남자 2030세대는 50%가 넘고, 여자 2030세대도 50%에 가까워, 2030세대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임
 - : 4050세대도 40%대 초반으로 불안감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
- ☑ 한편, 이념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내 일'에 대한 집중 정도는 이념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거 알아봤다', 화이트칼라·학생 외 모두 높아

- '내 일'에 대한 집중 정도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모든 직업에 걸쳐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안다'는 응답과 '최선을 다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음
 -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군은 '은퇴.무직자'이고, '최선을 다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군은 '학생'과 '은퇴.무직자'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선은 50% 기준선임
-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대부분 70% 이상이고, 주부와 은퇴.무직자 계층만 60%대를 기록함
- 또한, '다른거 알아봤다'는 응답은 자영업자와 블루칼라에서 50%를 상회함
 - 은퇴.무직자도 48%로 5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함
- 이에 비해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은 각각 39%, 37%로 낮게 나타남
- 결혼 여부별 및 자녀 유무별로 살펴봐도 이러한 흐름은 유사함
 - 모두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안다'는 응답과 '최선을 다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음
 -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과 '다른거 알아봤다'는 응답에서 '미혼'과 '자녀없다'는 계층의 수치가 높은 차이를 보임



Kstat Point

- ☑ 모든 직업군에 걸쳐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70%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주부와 은퇴.무직자는 60%대)
- ☑ '다른 거 알아봤다'는 응답이 높은 직업군은 자영업자, 블루칼라 종사자가 50%를 상회했으며,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30%대를 기록함
 - : 즉,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종사자의 불안감이 큰데 비해 화이트칼라와 학생의 불안감은 적은 것으로 보임
 - : 특히 남자 2030세대는 50%가 넘고, 여자 2030세대도 50%에 가까워, 2030세대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임
 - : 4050세대도 40%대 초반으로 불안감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
- ☑ 한편, 결혼여부별 및 자녀유무별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을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응답함
 - : 다만, 미혼과 자녀없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다른거 알아보는 비중도 높은 차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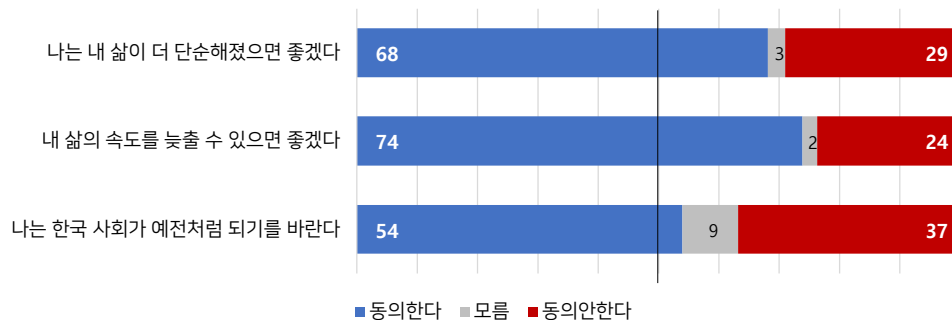
▶ '현재'에 대한 만족도

□ 국민들, '내 삶의 현재'와 '대한민국 현재'에 불만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현재 삶이 더 단순해지기를 바라고, 속도도 늦추기를 원함
 - “나는 내 삶이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68%
 - “내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면 좋겠다”, 74%
- 또한 한국 사회가 예전처럼 되기를 바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음
 - “나는 한국 사회가 예전처럼 되기를 바란다”, 54% vs 비동의 37%

'현재' 삶과 한국 사회 평가 : 국민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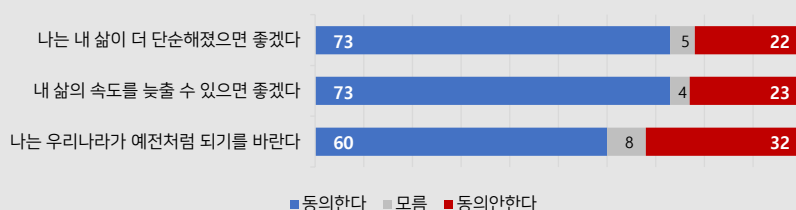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



Kstat Point

- ☑ 국민 다수는 자신의 삶이 더 단순해지기를 바라고, 삶의 속도를 늦추기를 원하고 있음
 - : 즉, 현재 자신의 삶이 복잡하고,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임
 - : 이는 복잡하게 변해가는 사회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로 분석됨
- ☑ 또한 국민 중 54%는 한국 사회가 예전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음
 - : 한국 사회의 현재에 대한 불만이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과거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는 것임
 - : 코로나19에 이어 미중 패권경쟁 격화 및 국제질서 재편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여기에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고조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임
 - : 입소스 글로벌 조사 결과 '내 삶이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73%, '내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면 좋겠다' 73%, '나는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되기를 바란다' 60%로 조사됨 (2022년 11월 조사결과, 전 세계 50개국)

글로벌 조사 결과 (자료:입소스 글로벌,2022년 11월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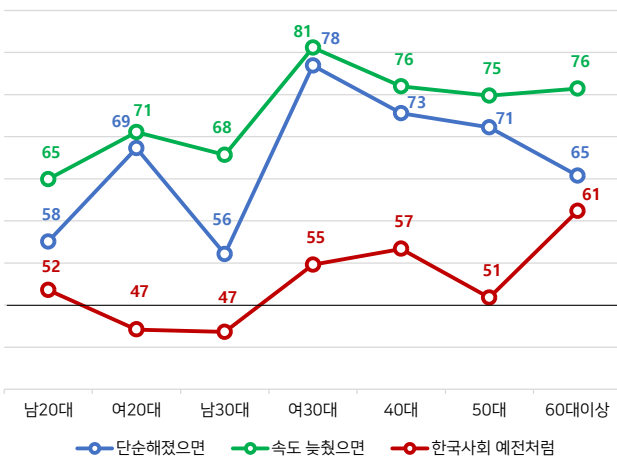


□ 삶의 '단순화·속도 늦춤', 여자 30대와 4060세대 높아

- 현재의 삶 평가 동의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연령대에서 '삶이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는 응답과 '삶의 속도를 늦췄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선은 50% 기준선임
- 특히 높은 동의도를 기록한 성/연령대는 여자 30대와 4060세대이고, 남녀 20대와 남자 30대는 상대적으로 낮음
- 다음으로 '한국사회가 예전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도는 여자 30대와 40대, 60대 이상이 특히 높았음
 - 다른 성/연령대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음
- 이념별로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함
 - 모든 이념층에서 '삶의 단순화'와 '삶의 속도 늦춤'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
 - '한국사회가 예전처럼'에 대한 동의도 역시 50% 이상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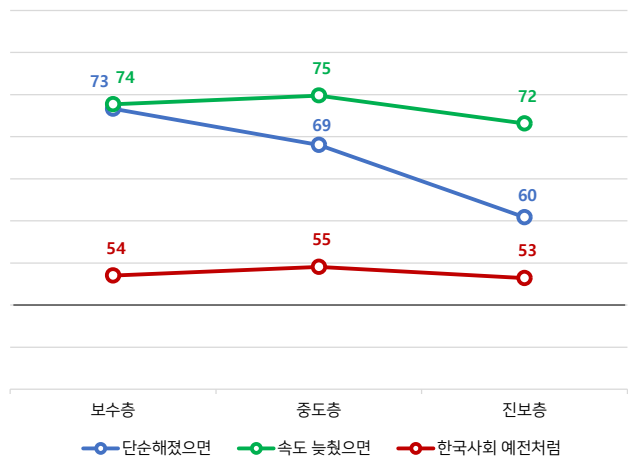
'현재' 삶과 한국사회 평가, 동의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



'현재' 삶과 한국사회 평가, 동의도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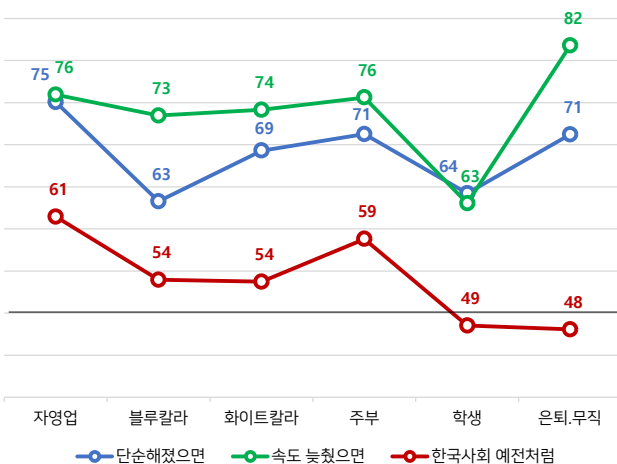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받는데, 정작 국민들은 이러한 빠른 속도에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모든 성/연령대에서 '삶의 속도를 늦췄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높고, 특히 여자 30대와 4060세대의 응답이 높음
- ☑ 또한 사회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삶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함
 - : 남자 2030세대를 제외한 모든 성/연령대에서 '삶이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는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
- ☑ '한국사회가 예전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자 30대와 40대, 60대 이상의 동의도가 특히 높게 나타남
 - : 최근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레트로(복고풍)'는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분석됨
- ☑ 한편, 이념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현재' 삶과 한국사회 평가는 이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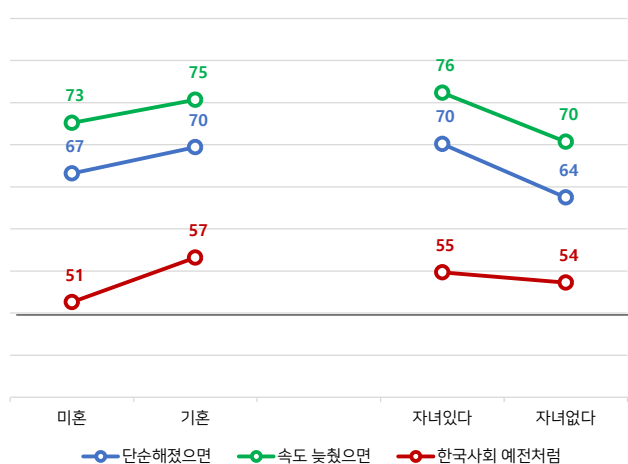
□ '레트로' 흐름, 자영업자와 주부계층에서 특히 높아

- '현재의 삶 평가 동의도'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모든 직업에 걸쳐 '삶이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는 응답과 '삶의 속도를 늦췄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선은 50% 기준선임
- 특히 높은 동의도를 기록한 직업군은 자영업과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 '한국사회가 예전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도는 자영업, 주부 등에서 특히 높았음
 - 다른 직업군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음
- 결혼 여부별 및 자녀 유무별로 살펴봐도 이러한 흐름은 유사함
 - 상대적으로 '기혼'과 '자녀있음' 계층의 수치가 높은 차이를 나타냄

'현재' 삶과 한국사회 평가, 동의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



'현재' 삶과 한국사회 평가, 동의도 : 결혼여부별,자녀유무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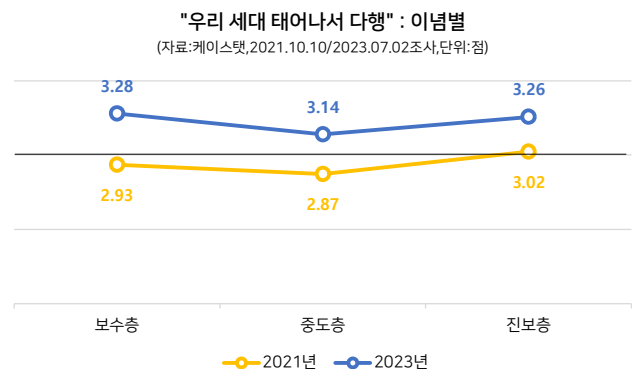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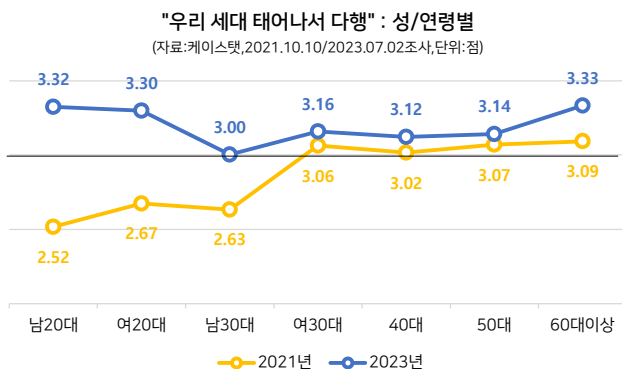
- ☑ 현재보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레트로(복고)' 열망은 모든 직업군에서 동일함
 - : 국민전체는 물론 성/연령별, 이념별, 직업별, 결혼여부별, 자녀유무별 등 모든 계층에서 이러한 열망은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현재 삶'과 '현재 우리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줌
- ☑ 이러한 낮은 만족도의 핵심은 자신의 삶과 우리사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는 확실성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과거를 추억하게 되는 것임
- ☑ 특히 이러한 미래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차원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문제이고, 여전히 진행중이기에 이러한 '레트로(복고)'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세대 태어나 다행', 20대 남녀·60대 높아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세대에 태어난 것에 대한 질문에 '보통'(3점)을 소폭 상회한 3.20점을 기록, '다행인 편'으로 생각함
 - "선생님은 선생님 세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지난 2021년 10월 조사와 비교하면,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2.93점에서 소폭 상승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연령에서 '보통'(3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20대 남녀와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임
- 2021년과 비교하면, 여자 30대와 4060세대는 거의 비슷한데 비해 20대 남녀와 남자 30대는 큰 폭으로 상승함
 - 남자 20대가 0.81점 상승해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다음은 여자 20대로 0.63점 상승함
- 이념별로 보면, 2021년에는 진보층만 '보통'(3점) 이상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모두 '보통'(3점) 이상을 기록함



Kstat Point

- ☑ 과거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세대에 태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함
- ☑ 특히 남녀 20대와 남자 30대는 2021년 '불행하다'에서 2년이 지난 현재 '다행'이라고 변화한 점이 주목됨
 - : 2021년과 현재를 비교할 때,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높게 유지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님
 - : 달라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라졌다는 점인데, 이에 따른 인식변화로 보임
- ☑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가 자신감을 되찾은 것은 긍정적임
 - : 앞서 '한국사회 예전처럼' 동의도에서 20대 남녀와 30대 남자가 다른 성/연령에 비해 동의도가 낮은 점도 이러한 자신감에 기반한 결과로 보임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9호는 『우리사회 '다양성' 및 '포용성' 평가』

라는 주제로 7월 20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7월 사회지표는 7월 13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